〈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 전시해설

N-8-1 범본심경 및 존승다라니

다라수 잎을 건조시킨 후 양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사본이 성행했습니다.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됩니다.

N-8부속 역경기

에도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설한 진언종 승려 조겐(1639~1702)은 실담(범자 및 범어에 관한 학문)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 범자에 뛰어났습니다.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필사하고 주점(훈독을 위해 붉은 색으로 표시한 기호)과 구의(글의 의의)를 기록한 후,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N-14 불명경

『불명경』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N-11 현우경 단간(오조무)

이 사경은 13권본 『현우경』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단간입니다. 필자는 쇼무(聖武)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 사경 중에서도 특히 웅대하면서 힘찬 서풍으로 '오조무(大聖武)'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N-14-1 불명경

『불명경』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으로, 중국의 승려 보리류지가 번역한 12권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6실 염직
-흰색 전과 포도 덩굴무늬 비단 깔개-

이번 염직 전시는 호류지에 전해져 온 깔개의 대표작으로 <흰색 전>과 <포도 덩굴무늬 깔개>를 소개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흰색 전>과 이국적인 포도 덩굴무늬 등과 같이 국제적인 고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N-38-1·2 : 포도 덩굴무늬 비단 깔개
겉감 조각·안감 조각·심 조각
나라시대 754년

원래 이러한 깔개는 골풀로 짠 돗자리를 삼베로 감싼 것을 심으로 하여, 겉감은 비단으로, 안감은 홀치기 염색을 한 평직비단을 덧대어 짓습니다.

흐르는 듯이 부드럽게 전개되는 포도 덩굴무늬는 나라시대에 많이 애용된 무늬입니다. 또한 N-38에 사용된 삼베에는 754년에 히타치국(현재의 이바라키현)이 바쳤던 조세용 직물이라는 의미의 묵서명이 있습니다.

N-54-1 : 흰색 전
나라시대 8세기

전(氈)이란 양모로 만들어진 깔개로서, 오늘 날의 융단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원에서는 승려의 깔개로서 사용되어 일본에서는 호류지와 쇼소인에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양모를 두껍게 나열하고 수분을 가한 후에 말아 올려 압축시키고 이것이 건조되는 동안에 모가 뒤얽혀 한 장의 깔개가 됩니다. 즉 오늘날의 펠트 기법으로 만들어진 깔개입니다.

전은 지금도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품도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뒤 당나라로 건너와, 당나라에 파견된 일본 사신이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밋밋한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대한 국제 교류의 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